

# 여수시,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박차

### 자체 세부대응 계획 수립...대응 전담 TF팀 구성

### 휴대용 측정기 구입·수산물안전센터 건립 추진

여수시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압박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와 함께 해양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수산업계뿐 아니라 연안 산업과 관광분야까지 막대한 피해가 전망된다.

이에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수산물 안전성 대응계획과 연계한 별도 자체 세부대응 계획을 수립, 수산물관련 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침이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가장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비 2천 만원을 투입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구입했다.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본격화되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응 전담 TF팀 구성, 위판장·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휴대용 측정기를 활용한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을 인식, 독자적이고 능동적

인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55억 원 규모의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확보 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도와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어업지도선 내 방사능을 이용한 해수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의 시 어업지도선 내 설치 관련 업체와 검토 중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신속히 도입해 독자적 해수 방사능 감시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달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 관련 단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다수 어업인들이 수산물 소비위축 시 현실적인 손실보상, 정부수매 등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보상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



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 고흥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효과적인 실습 교육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

고흥군은 2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비롯한 어린

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응급상황 행동요령 ▲어린이 대상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교육을 진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시 신속한 행동요령을 익혀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일상 속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조선대학교와 연계 '평생학습 인문학 강좌' 운영

보성군은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문덕면 가내마을 천상재 학당에서 '평생학습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2020년부터 순천제일대, 조선대학교, 전남도립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올해로 4년 연속 평생학습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3보향 깊이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연계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아동문학가 김복희 회장의 '동심으로 세상과 하나 되는 아동문학'이라는 주제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8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첫 강의에 축사를 맡아준 조선대학교 재단 인문학 연구사업단의 이석현 교수는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 강좌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인문학 공부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한 천상재 강좌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문학 강좌는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참여는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영순 기자

## 광양시, 친환경 밤나무

### 해충 항공방제 실시

###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재배지 1212ha

광양시는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간 고품질로 일손이 부족한 밤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관내 밤나무 재배지 1,212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제 대상인 복숭아명나방은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에 부화한 유충이 밤송이와 과육을 파먹고 들어가 밤의 결실과 품질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시는 복숭아명나방뿐만 아니라 밤바구미 등 밤나무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집중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해 인근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헬기 안전상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은 지상방제 약제를 배부할 계획이다.

항공방제 대상 지역의 주민은 방제 당일 △방제지역 입산 금지 △산나물 채취·건조 금지 △장독대 뚜껑 개방 금지 △양어장 급수 일시 중단 △방풍·방목 금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양=김현근 기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 84일 만에 500만 관람객 달성

### 500만번째 입장객, 성남시 이경욱씨 가족 "너무 행복"



23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500만번째 관람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조석익 제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84일 만인 23일 오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 최종 440만 명의 관람객을 확보한 2013정원박람회의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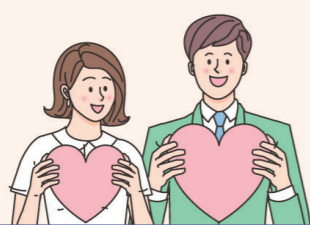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순천시장)는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500만 번째 입장객을 맞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라퍼커션의 시원한 타악기 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노관규 이사장, 정병희 순천시시장 등이 참석했다.

500만 번째 입장객은 성남시에서 가족여행으로 순천을 방문한 이경욱씨 가족이었다.

노 이사장과 정 의장은 500만 번째 입장객에게 월랑계 숙박권과 정원드림호 탐승권, 100만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양승명 명성사우나 대표가 500만 관람객 돌파를 축하하며 후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